불광미디어, 〈콘텐츠 선별제공 매체〉 Curation media '첫 발'

6월 19일 홈페이지 개편
콘텐츠 중심 새롭게 구성

영상 · 카드뉴스 강화
해외불교 소식도

지난해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한 불광미디어가 큐레이션 미디어(Curation media)로 발돋움하기 위해 콘텐츠 중심 정보 제공에 박차를 가한다. 하루 230개의 국회도서관이 생겨날 정도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주)불광미디어(대표 류지호)는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실시, 6월 19일자로 새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번 개편은 사장돼가는 종이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자들의 기호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

불광미디어가 추구하는 정체성은 큐레이션 미디어다. 쉴 틈 없이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광미디어는 〈월간불광〉이 지난 43년간 축적해온 2만여 건의 기사와 사진 등 콘텐츠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고, 새로 제작되는 팟캐스트와 동영상 · 카드뉴스 · 해외불교 뉴스 등 기존에 다루지 않은 콘텐츠를 강화했다. 콘텐츠 구성 역시 사실 · 행사 · 단순 보도가 아닌 전문화된 안목으로 불교의 시대적 사명을 분석하고, 흐름과 맥락을 중시할 계획이다.



불광미디어 홈페이지. 뉴스와 팟캐스트, 출판서적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개편된 홈페이지 메뉴는 크게 △뉴스 △책이야기 △블로그 △팟캐스트 △월간불광 △불광출판 △원더박스 등으로 구성됐다. 뉴스는 사건보도가 아닌 이슈 · 인물 · 문화 · 트렌드 등으로 나뉜다. 또한 '화제의 책과 분류별 책 콘텐츠' '오피니언 · 칼럼' 등이 하위메뉴로 포함된다. 특히 영어 · 중국어 페이지를 통해 책 소개를 하는 등 콘텐츠 수출과 국제적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끈다.

불광미디어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유통에도 나선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마케팅부서를 전략기획실로 확대 개편하고,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등 팔로워 확대를 추진해왔다. 현재 페이스북 팔로워는 1만1000여 명이며, 기타 소셜미디어도 1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자와의 대화' 등 소셜미디어에 라이브방송을 송출하며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유권준 전략기획실장은 "교단 · 사찰 · 스님에서 경전 · 가르침 중심으로, 텍스트 위주에서 사진과 그래픽 · 영상 위주로 콘텐츠 변화에 나선다"면서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불교에 국한하지 않고 융합미디어로 성장하겠다"고 기획 배경을 밝혔다.

불광미디어의 이 같은 변화는 출판업계가 겪는 현실적 고민과 맞닿는다. 종이책을 통한 독서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고, 홍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게다가 종교서적 출판업계는 일반출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류지호 대표는 "법인 전환 이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지금의 변화가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앉아 고사되길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며 "현대의 출판 · 잡지가 지향해야할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기술적 습득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재가자자 맞춤 여름불교대학 '인기'

남원 실상사, 여름학림 개최

무더운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춰 재가자들을 위한 사찰 불교대학에서 정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남원 실상사(주지 응묵)는 1차 7월 26~30일, 2차 8월 2~6일 경내에서 '재가불자 여름학림'을 연다.

2008년 처음 시작된 재가불자 여름학림은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했다. 시간이 부족해 1~2년 과정 참여가 힘든 재가자들을 위해 도입된 실상사 여름학림은 템플스테이 형식에서 벗어나 4박 5일간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1차 여름학림에서는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이 강사로 나서 〈청정도론〉에 나타난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한 이론 및 좌선 수행을 지도한다.

2차 여름학림에서는 前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그림으로 읽는 불교문화 이야기'를 통해 사찰 탱화와 벽화 등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불교설화를 전한다.

실상사 주지 응묵 스님은 "일반적인 템플스테이와 달리 4박5일간 스님들과 공부하며 토론과 수행을 병행해 만족도 높다"고 설명했다. (063)636-3031

노덕현 기자

"사명대사 호국 원력, 이어 가겠다"

20차 전국만일염불회 염불정진대회, 밀양 표충사서

불교계 대표 염불정진 수행모임인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가 20차 염불정진대회를 밀양 표충사에서 개최한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염불정진대회에는 250여 명의 염불행자들이 참여한다.


통도사서 진행된 19차 염불정진대회.

1998년 결성된 전국염불만일회는 금강산 건봉사에서의 첫 염불정진대회를 시작으로 천봉산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달마산 미황사, 팔공산 은해사, 한라산 법화사, 덕숭산 수덕사, 토함산 불국사, 백담사 만해마을, 여엽산 연화사, 오대산 월정사, 치악산 구룡사와 자연학습원, 금오산 향천사 양산 통도사에서 정진대회를 연 바 있다.

전국염불만일회 측은 "염불만일결사는 불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녀노소, 신앙의 경력, 지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차별 없는 불교인들의 만남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국만일염불회는 6월 24~25일 서울 동산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나무아미타불 6900일 철야정진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경 일만회 독송
업장소멸기도 봉행

순천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는 6월 24일부터 100일간 금강경 일만회 독송 업장소멸기도 집중기간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진행한다.

법련사는 5월 26일 금강경 일만회 독송에 입재한 바 있다. 독송은 하루 3독을 기본으로, 매일 지참한 경전에 확인 도장을 날인해 입재 후 100일마다 수행을 점검한다.

주지 진경 스님은 "금강경 독송은 스스로와의 약속"이라며 "불자 개개인의 근기에 따라 독송 횟수를 설정하고 만독의 원력을 세워 원만 성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단체도 포살 동참한다

6월 28일 공식 포살예문 배포, 첫 법회 예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6월 28일 포교원 산하 단체 실무자들과 포살법회를 연다. 조계종 포교원은 신행혁신운동 차원에서 이날 포살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전법과 포교에 나서는 종무원과 불자들부터 스스로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고 원력을 새롭게 세우자는 취지다.

특히 이번 포살법회에서는 오계를 중심으로 포교신행단체 종사자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을 담은 '포살예문'이 배포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5월 23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에서 포교원 산하단체와 월례법회를 열고 포살법회 형식으로 미리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포살예문 제작을 시작했다. 포교원 측은 이번에 시작되는 포살법회는 향후 포교사단 포살법회 등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살예문은 예경삼보, 헌향계, 개경게 등으로 구성된 '포살의례'와 참회의 내용을 담은 '바라제목차'를 설하는 '포살서문', 대중의 계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설계', 원력을 다지는 '포살회향' 등으로 구성됐다.

'설계'의 계목은 총 18가지로 처음 5가지는 오계를, 그 다음 11가지는 신행청규의 덕목을 담았다. 마지막 2가지는 포교단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마음자세로 '한국불교의 미래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자각하고 원력 정진하라. 이것이 사부대중의 계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진리의 공동체인 대한불교조계종 구성원으로서 항상 화합하고 협력하여 불사를 성취하라. 이것이 사부대중의 계이니,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등이다.

지홍 스님은 "불교 입문자들이 기복으로 신행을 시작해도 결국 수행과 전법의 삶으로 회향하게 되어 있다. 포교 일선에서 일하는 많은 불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용자 교화에 전심전력 다할 것"

교정교화전법단 창립 6주년 맞아

사회와 격리된 교정기관에서 재소자 교화에 나서고 있는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단장 혜원)이 창립 6주년을 맞았다. 교정교화전법단은 6월 17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기념법회와 지원단 정기연수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 단장 혜원 스님과 전법단 및 지원단에서 활동하는 사부대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교정교화전법단은 현재 지도법사 스님 31명과 재가불자들로 이뤄진 지원단 50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법회에서는 그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사무국장 지일 스님과 4월까지 지원단장으로 활동하며 법요집 발간과 포교사 교재 기획, 관계단체 협력에 기여한 조철주 전문포교사와 박정숙 지원단前부단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신임 전법지원단 임원인 강민구 전법지원단장, 어윤식 수석부단장, 진영순, 권영수 부단장, 박종선 사무과장, 이영애 홍보과장, 남현정 기획과장, 최홍자 지원과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전법단장 혜원 스님은 "한국불교는 소외된 많은 이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교정교화전법단은 어려운 환경에서 불심을 잃지 않은 재소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관장 : 이준혁

※ 지면은 쥐 · 원숭이 · 용띠 기준 ※

개운원판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12신살을 이용한 방위개운법 붉은색이 정북입니다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1회 전화 및 방문하시면 상담 하여드립니다.

• 가액 : 20만원

특허번호 4-2013-035176-1
특수재질 PC

NAVER 귀장술 원판 귀장술 수강생 모집 검색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故 박일우 선생님 영전에 바칩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